

몽당 연필로  
그리는  
노화가의 꿈



한인현 지음 | 늘푸른소나무 |  
268쪽 | 값 8,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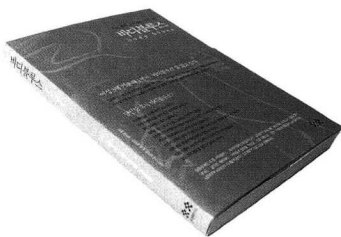
한인현 산문집 《화가 한인현의 행복한 그림일기 꿈》

예술의 속성은 천진함일지도 모르겠다. 예술가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공하지 않는다. 이 책의 저자 한인현은 바보화가로 불리는 사람이다. 책 속에 드러난 한인현의 모습은 어눌하기 짝이 없고, 문명의 이기와 담을 쌓고 사는 것처럼 보인다. 그가 자신의 집을 찾지 못해 골목에서 헤매거나 기르던 개가 죽었을 때 과자 몇 봉지와 함께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준 일화는 익살도 아니고 해학도 아니며 다만 천진한 삶이 갖는 애뜻함으로 다가올 뿐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눈은 충일한 동심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버림받은 개와 나무와 들꽃들을 눈여겨 바라본다. 그의 크로키와 데생은 따뜻하면서도 섬세하고, 살아 있는 듯 생생하면서도 지나간 사진처럼 아련하다. 《화가 한인현의 행복한 그림일기. 꿈》에는 그가 몽당연필로 그린 그림과 더불어, 잔잔하면서도 진솔한 칠순 노화가의 일상들이 펼쳐져 있다. 그는 딸들과 손녀들과 자신이 기르는 개들을 즐겨 그린다. 미화美化가 없는 그의 데생처럼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그의 어조 어디에서도 허세와 가식이 엿보이지 않는다.

“화가이되, 이 땅의 이름난 화가들 삶과는 전혀 판관인 삶을 살아오는 동안 가난과 설움을 불편해하지 않고 이제껏 화가 노릇을 하게 해준 아내와 두 딸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예술가의 삶에 무턱대고 신성성Divinity을 부여해서도 안 되지만, 인간 세상의 속기俗氣를 요구해서도 안 된다. 그의 느린 보폭을 보면 그의 그림일기는 기동 같은 연필이 몽당연필이 될 때까지 계속될 것 같다. **추천**

당신 몸이  
슬픔에 잠겨 있다!



마리 아넷 브라운·조 로빈슨 지음 |  
곽미경 옮김 | 소소 | 272쪽 |  
값 10,000원

《바디블루스》

언제부턴가 몸이 늘 피곤하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너무 많이 먹고, 까닭 없이 우울하다. 잠을 깊이 못 잔다.

‘바디블루스’의 증상이다. 이 책은 현대 여성 3명 가운데 1명이 바디블루스를 앓고 있다고 진단한다. ‘바디블루스’라는 생소한 병명은 ‘육체적 슬픔 증후군’ 혹은 ‘식물성 우울증 증상’ 정도로 번역될 수 있다. 저자는 바디블루스로 명명된 증후군이 대부분의 오해와는 달리 ‘마음의 병’이 아니고 ‘뇌의 질병’이라고 말한다.

이 책은, 생리주기, 나이 들, 계절의 변화, 폐경, 기분 변화 등에 따라 여성들의 주요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테스토스테론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이것이 여성들의 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양한 그래프를 통해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 바디블루스를 치료하기 위해 저자는 LEVITY 프로그램을 실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LEVITY 프로그램은 Light(빛), Exercise(운동), Vitamin Therapy(비타민 섭취요법)에서 따온 말로, ‘밝은 빛 쬐기’, ‘하루 20분 활기차게 걷기’, ‘뇌 화학물질의 구성성분인 비타민 섭취하기’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저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바디블루스의 처방으로 주장하는 근거는 임상실험에서 8주간 프로그램을 실행한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굳이 바디블루스를 앓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들이 제시한 프로그램을 충실히 따르면 누구나 건강한 심신을 유지하면서 행복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 **추천**

김도언기자

## 《시계밖의 시간》

'시간'에 대한 책을 쓰기 위해 2년을 사고·독서하고, 1년 간 집필에 몰두했다는 제이 그리피스. 그는 《시계밖의 시간》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의 시간 묘사방식을 정리한다. 13개의 챕터로 이루어진 책은 속도, 신화, 여성, 자연, 죽음, 지혜 등 시간과 연관된 주제들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가며 말한다. 고대에서 현대까지, 인도, 타일랜드에서 뉴질랜드까지, 시간을 주관했던 신 크로노스부터 시간관련 음악을 발표한 비틀즈까지. 시공을 넘나들며 시간을 묘사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장점이다. 그러나 책을 단순한 '시간 보고서' 혹은 '역사서'라고 규정하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다. 제이 그리피스는 자신이 보고, 듣고, 연구한 방대한 분량의 '시간' 이야기를 통해 두 개의 문화를 대비시킨다. 그것은 자연을 통해 시간을 인식하는 '자연 속' 인물들의 '시간문화'와 시계가 없으면 당장 불편할 수밖에 없는 우리 근대인들의 '시간문화'다. 그는 이를 통해 근대인들의 편집광적인 시간축적법을 비판한다. 시계 속에 갇힌 근대인들의 시간. 그 시간은 한 시간과 30분, 1분과 1초로 분절된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가 정해놓은 데드라인deadline에 다가간다. 말 그대로 '죽음의 선' 앞에서 우리들이 만나게 되는 것. 저자는 그것을 '억압'이라 말한다. 이처럼 《시계밖의 시간》은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면서 그것의 다양성을 말살시키는 서구산업사회의 시간개념을 비판하는 책이다. 저자는 '시간'이 '불안'과 '공포'의 요소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말을 하기 위해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귀에 담는다. 그동안 서구화된 시간남용 세태에 대해 이렇다할 논증을 구사하는 이가 그동안 없었다고 말하는 저자. 책이 주는 첫 번째 즐거움은 저자의 자신만만하고 예리한 문체를 접한다는 데 있고, 두 번째 즐거움은 속도지상주의를 말하기 위해 그가 제시하는 방대한 지식을 만날 수 있다는 데 있다.

'시간의 비참한 노예가 되기 싫거든 취하라'

시간, 분, 초를 계산하며 다음 스케줄을 기다리는 이가 있다면 말해주고 싶다. 저자가 인용한 보들레르의 시처럼 시간의 비참한 노예가 되기 싫거든 여유로이 책을 펼쳐라. **추천**

김청연 기자

노예가 되기  
싫거든 여유로이  
책을 펼쳐라



제이 그리피스 지음 | 박은주 옮김 |  
당대 | 592쪽 | 값 23,000원

## 《기억과 전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2002년 창간호로 계간 《기억과 전망》을 펴냈다. 그동안 잊혀졌던 과거의 민주화운동과 그 성과를 정당히 복원, 평가하고, 나아가서는 미래의 민주주의상을 함께 다듬어 나갈 수 있는 소통의 한마당이 되기를 기원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박호성(서강대 교수) 편집위원장을 비롯, 편집위원으로는 김정환(시인), 송주명(한신대 교수), 엄동섭(서강대 교수), 정태인(시사평론가), 정태현(고려대 교수) 등 진보적 성향의 지식인들과 문화인들이 참여하였다. 창간호 특별 좌담으로 '민주화운동과 이념, 그 현재적 의의'이라는 제목으로 과거의 민주화운동이 현재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돌아보았다. '기획: 한국의 민주주의와 선거'에서는 지난 대선을 계기로 우리의 선거문화, 지역주의 정치문제, 진보정당문제 등을 짚어보았다. 앞으로 민주화운동관련 본격 학술지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추천**

강경희 기자

민주화운동  
복원·평가로  
미래 민주주의상  
다듬다



계간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272쪽 | 값 9,000원